

창원경제 동향과 이슈 브리핑

2018. 7. 13

창원상공회의소 기업애로지원팀

◎ 창원 제조업 경기전망(BSI)

- 2018년 3분기 창원 제조업 경기전망, **5개 분기 연속 기준치(100) 하회**
 - 내수와 수출 모두 매출액 감소 전망
 -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,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불안 등이 주된 요인
- 실적지수, 5년 이상 기준치(100) 하회 지속

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(BSI)



<자료 : 창원상공회의소>

○ 창원 전 제조업에 걸쳐 경기전망 부정적

- 운송장비(자동차, 조선)와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낮은 지수를 나타냄.
-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이, 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이 3분기 경기 더욱 부정적으로 전망
 - 대기업, 수출기업 중심의 창원산업 특성 상 경기하락 추세 이어질 우려

창원 업종별 3분기 경기전망(BSI)



<자료 : 창원상공회의소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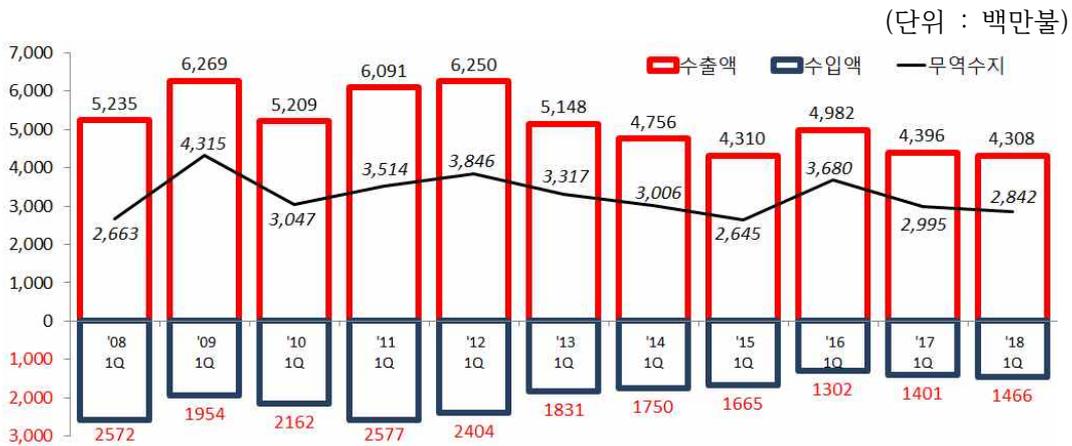
◎ 수출입 동향

○ 창원 1분기 수출 43억\$, 2006년 1분기 수준에 그침

○ **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며 불황형 흑자 지속**

- 창원산업은 원자재, 자본재 수입 후 가공·조립 등 부가가치를 입혀 재수출하는 구조
수입액 감소 → 수출 감소 ⇨ 총교역량 증대가 창원산업 전반에 가장 확실한 청신호
-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, 중국 내수확대와 자국산업 정책 등 → 전세계 교역량 감소

[창원 1분기 수출입 동향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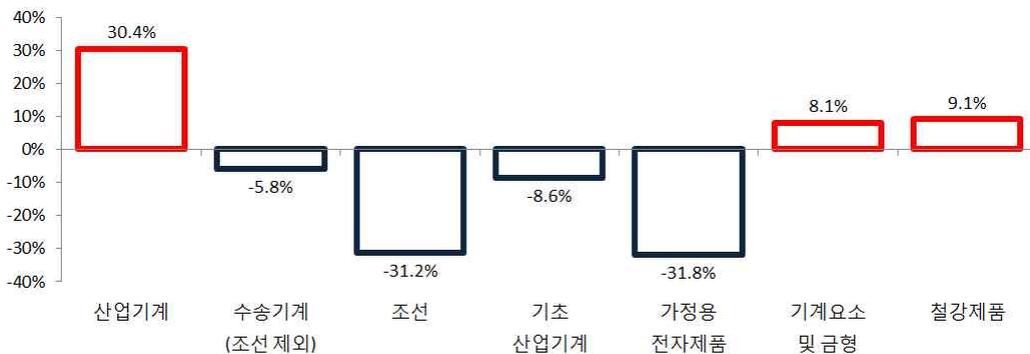


<자료 : 한국무역협회>

○ 주력 수출산업(선박, 자동차부품, 플랜트, 가정용전자제품 등)의 수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교역수준 회복은 요원한 일

- 조선경기 불황 속, 선박 수출 급감을 자동차 부품과 백색가전이 상쇄해온 것과는 대조적
- 굴삭기, 공작기계 등 산업기계 수출은 호조

[창원 주요 산업별 1분기 수출 증감]



<자료 : 한국무역협회>

○ 美·中무역전쟁, 美이란제재 재개,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등 수요감소를 부추기는 **대외악재로 향후 수출실적 전망도 부정적**

- 이란제재 개재로 창원 對이란 수출기업 23개 중 17개 사, 이란과 거래 중단
- 美·中무역전쟁으로 중국의 對미 수출의 서플라이 체인에 속한 창원기업들 피해 우려

◎ 산업생산

○ 창원 제조업 생산,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감소

○ 재고수준, 지수산출 이래 최고 수준 기록

- 출하량 감소와 생산량 감소가 겹쳐 완성품, 원자재, 부자재 재고 추세적 증가

[창원 산업생산 및 재고지수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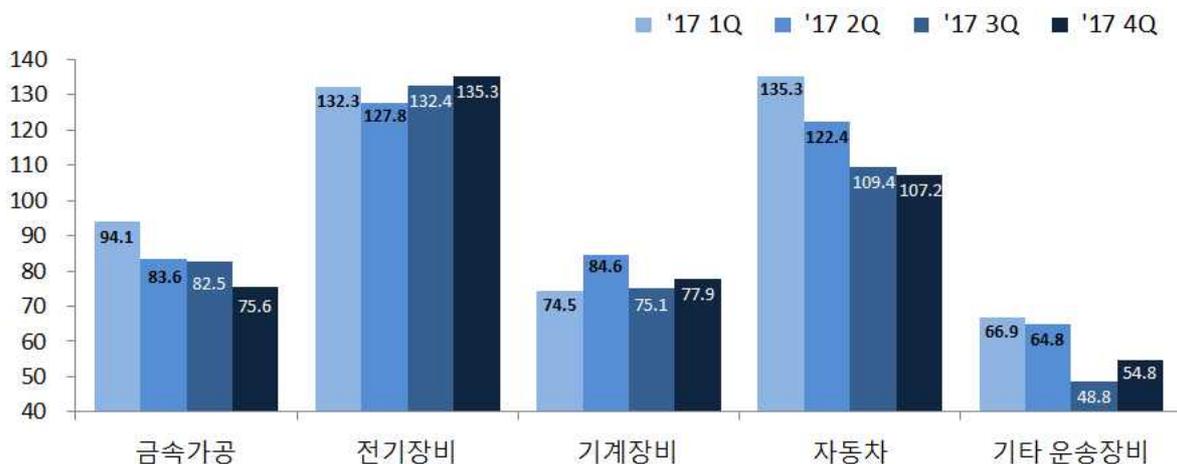
<자료 : 창원시 통계정보시스템>

※ 재고는 분기말 기준(Stock)

○ 2017년 이전 창원 수출과 생산량을 주도해온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생산량 급감

-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기타 운송장비와 기계장비 생산지수 하락세 지속
- 기계장비 제조업, 2017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수요가 회복세를 타며 올해 상승 전망
- 전체 산업경기와 반대방향(SOC)의 성향을 가진 전기장비(발전) 제조업만 꾸준히 생산량 증대

[창원 제조업 업종별 생산지수]



<자료 : 창원시 통계정보시스템>

◎ 고용

- 창원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 수 점진적 증가,
하지만 **제조업 근로자 수(4개 분기 연속 감소)는 꾸준히 감소 중**
- 2016년 2분기부터 서비스업 근로자가 제조업 근로자 수를 상회했으며, 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
제조업 퇴직자 → 숙박·음식점, 도·소매, 임대서비스업
- 기계장비제조업 근로자 수(4개 분기 연속 증가)를 제외한
조선, 자동차, 금속가공 등 창원 주력산업의 근로자 수는 꾸준히 감소 중

[창원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]

(단위 : 명)

	'15. 1Q	'16. 1Q	'17				'18. 1Q
			1Q	2Q	3Q	4Q	
전체	242,088	244,509	243,810	245,243	245,064	245,864	245,764
제조업	117,524	115,559	111,711	111,422	111,075	111,237	110,883
서비스업	111,243	115,452	118,189	120,136	120,227	120,906	121,222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-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수 9개 분기 연속 감소, 10인 미만 사업체 지속 증가세
대규모·제조업 → 소규모·서비스업 추세

[창원 규모별 근로자 수 동향]

(단위 : 명)

	'15. 1Q	'16. 1Q	'17				'18. 1Q
			1Q	2Q	3Q	4Q	
전체	242,088	244,509	243,810	245,243	245,064	245,864	245,764
10인 미만	54,948	57,521	58,129	59,327	59,882	61,829	60,477
10 ~ 99인	91,391	91,746	92,418	92,650	92,681	91,595	92,446
100 ~ 299인	34,044	34,909	33,831	33,849	33,590	33,575	34,051
300인 이상	61,705	60,333	59,432	59,417	58,911	58,865	58,790

- 고용안정성이 약한 서비스업 피보험자 수의 증가와 제조업 퇴직 증가까지 더해져,
퇴직자 수와 실업급여 지급 수, 사상 최대치 기록

[창원 고용보험 상실자 및 실업급여 지급 건 수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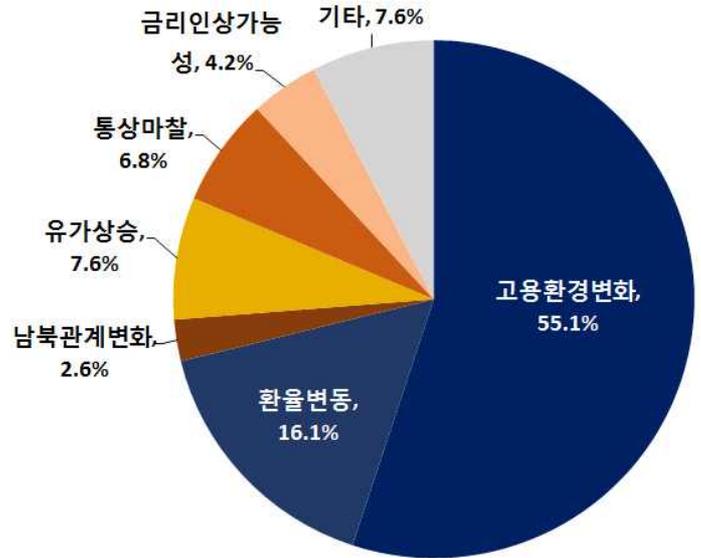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명, 건)

	'15. 1Q	'16. 1Q	'17				'18. 1Q
			1Q	2Q	3Q	4Q	
퇴직자 수	31,830	33,694	32,540	24,937	26,345	22,197	35,379
실업급여 신청건 수	12,987	13,723	14,172	13,990	13,819	11,958	14,827

◎ 기업경영 상 리스크

- 창원기업, **기업경영 상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요인 '고용환경 변화'**
 -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상임금과 추가 상승압력이 큰 최저임금에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져 국내 고용환경은 전에 없는 혼란기를 겪는 중
- 다음으로 '환율변동', '유가상승' 등 채산성 악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
- 과거 주요 경영 리스크로 지목되어 온 '금리인상', '통상마찰' 등 거시적 요인들은 낮은 응답률

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



◎ 주택매매 가격지수

- 근로자 수를 비롯한 인구감소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와 공급증대로 창원 집값 하락세 지속
 - 창원 주택매매 가격 2011년 수준(98.0)까지 하락
 - 주요 기업이 밀집해 있고, 비교적 높은 가격대가 형성된 성산구 일대가 가장 큰 낙폭

[창원시 주택매매 가격지수]

(2015. 6 = 100)

	2016	2017				2018		
	4Q	1Q	2Q	3Q	4Q	1Q	전년동기 대비(%)	전분기 대비(%)
종합 매매가격지수	104.5	104.0	103.2	101.5	99.5	98.1	-5.7%	-1.4%
의창구	104.5	104.3	103.8	101.4	99.5	98.2	-5.8%	-1.3%
성산구	110.2	108.6	107.3	103.5	99.2	97.2	-10.5%	-2.0%
마산합포구	102.1	101.8	101.3	100.6	99.7	99.3	-2.5%	-0.4%
마산회원구	102.5	102.3	101.6	100.9	99.6	98.0	-4.2%	-1.6%
진해구	102.8	102.3	101.3	100.7	99.6	97.9	-4.3%	-1.7%

<자료 : 한국감정원,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>

◎ 창원산업의 당면과제

-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,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조속 마련
- 중형조선소(STX조선해양 등) RG발급 원활화 방안 마련
- 한국지엠 창원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조속 지정
- 재료연구소 ‘원’ 승격을 비롯한 지역 기반 R&D 인프라 확충
- 남북경협시대를 대비한 지역 중소기업 참여방안 모색
-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추가 투자 유도
-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정비
- 탄력적 산업단지정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